

수입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산림청은 9월 14일부터 수입임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전국 각 시·도에 시달하고,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대하여는 산림청과 해당 시·도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 하였다.

수입임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는 중국등으로부터 표고버섯, 고사리, 꽃감 등 많은 임산물이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국산과 혼합하여 판매됨으로써 유통질서를 혼

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93년 7월 1일부터 위반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이 강화되었다.

산림청은 앞으로 계속하여 각 시·도 산림부서 주관으로 월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94 밤 출하조절자금 110억원 지원

산림청은 농산촌의 주요소득품목인 밤 수확기를 앞두고 홍수출하방지와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1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농산촌의 주요소득품목인 밤 수확기를 앞두고 홍수출하방지와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농가의 생산소득을 도모하기 위해 1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밤 수확기의 일시적 대량 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분산출하를 통한 수급안정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110억 원을(각도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용자한도는 kg당 875원씩 농가당 3천만원 범위안에서 연리 5%로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대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출하하면 된다.

○특히 밤생산농가들은 밤 성수기인 설날 및 보름기간중에 출하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어 농가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자대상자는 밤 생산농가로서 출하조절을 위하여 밤을 저장하고 있는 자 또는 밤 저장을 하고자 하는 자(생산자 단체 및 법인포함)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밤 출하조절자금 취급은 농

협에서 전담하여 왔으나 농안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입협에서 취급토록 되었으나 밤생산농가들이 용자지원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입협이나 농협 중 편리한 곳에서 용자를 받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연간 밤생산량은 약 80,000M/T이며, 이중 30,000M/T을 수출 95,000천\$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으며, '94년도 수출계획은 34,500M/T에 120,000천\$이다.

낙엽송 꺾꽂이(삼목) 대량증식 방법 개발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는 우리나라 주요 조림수종인 낙엽송의 삼목증식방법 개발에 성공하므로써 앞으로 부족한 묘목공급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낙엽송은 우리나라 주요 조림수종의 하나로 연간 약 5천ha에 600kg 정도의 종자가 소요되나 결실주기가 6~7년이며 흉풍이 심해 종자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목육종연구소 구영본 연구팀이 어떤 환경에서나 삼목이 잘되는 새로운 개체를 선발하는데 성공하므로써 앞으로 우량 낙엽송 묘목생산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 연구팀은 우량 낙엽송 채수포를 '94년에 이미 0.3ha를 조성하였고, '96년까지 3ha로 확대하여 '98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 매년 290만본을 생산하여 1,000ha의 산지에 낙엽송을 조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낙엽송 삼목 채수포외에 풋트 삼목법을 개발중에 있어 앞으로 노동력과 인건비부담을 크게 줄일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밤 수확량 평년작 수준

산림청은 올해 밤수확량을 평년작수준인 85천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석 제수용품을 비롯한 국내 밤 수요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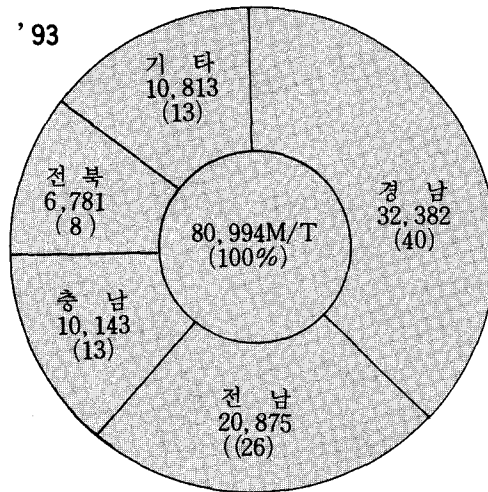
○산림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밤

수확은 성장기인 6~7월에 밤주산지인 경남·전남지방의 가뭄현상으로 작황이 다소 부진하나 적기에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 작업을 실시하므로써 평년작수준은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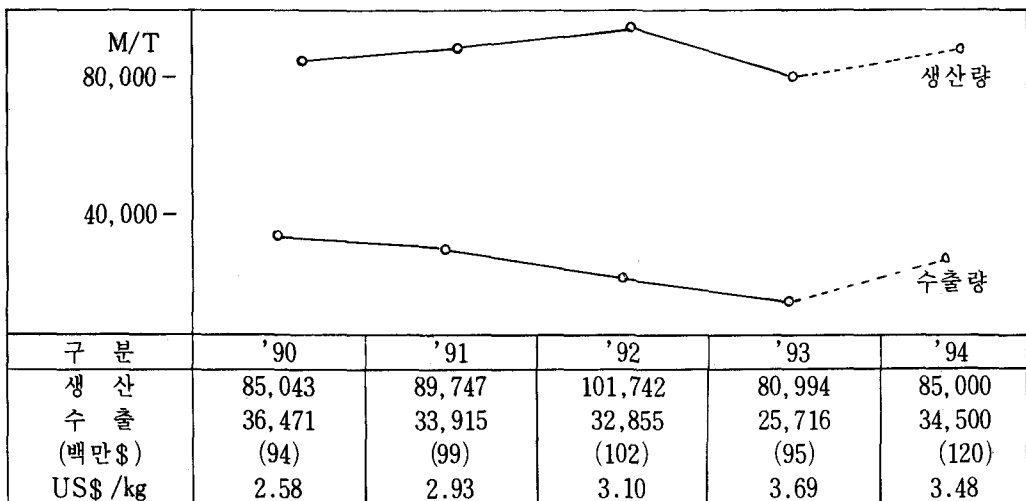
○특히 '93년에는 이상기온으로 81천톤 생산에 그쳤으며, 이중 26천톤을 수출하여 95백만\$의 외화획득을 하였으나 '94년에는 약 35천톤 수출에 120백만\$ 외화획득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매년 밤나무 병해충 방공방제를 적기에 실시하므로서 약 30% 증수효과를 가져와 밤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밤 주산지



○밤 수출동향 <밤생산 및 수출동향>



- 품목별 수출('93) : 간밤 83백만\$ (87%), 통조림 10(11%), 생밤 2(2%)

- 국별 수출('93) : 일본 94 " (99%), 미국·기타 1(1%)

편백종자 대량생산법 개발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 남부육종장은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주요수종으로 인기있는 편백에 식물생장조절 물질을 주입한 결과, 평소보다 10배가 넘는 우량종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편백은 생장이 우수하고 편백특유의 향기와 광택을 지니고 있으며 선박재, 건축재, 고급포장재, 무늬 단판재 등 고급재로 인기가 있고 경제성이 높은 수종이다.

○임목육종연구소의 김원우 연구팀은 편백의 종자결실이 풍흉과 해결이등으로 우량종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 착안하여 전국의 형질이 우수한 수형목을 선발, 무성번식시켜 40ha의 채종원을 조성하고, 나무의 꽃방울이 맺힐 무렵인 8월중순에 분말시약 지베레린과 활성보조제인 CMC(용액)를 혼합하여 편백에 주입하는 시험을 실시한

결과 약제를 주입하지 않는것 보다 10배가 넘는 ha당평균 14kg의 종자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편백 종자는 연간 약 700kg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의 채취방법은 전국의 편백조림지에서 많은 인력과 경비를 투입하여 종자를 확보하였으나 대량 생산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종자의 안정적공급, 인력과 경비의 절감효과와 더불어 우수한 고급재를 생산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 편백나무는 1900년경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남부 일부지역에서 조림을 시작한 후 전국적으로 총 115천여ha에 이르며, 병충해에도 강하고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조림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최근에는 매년 3천여ha씩 조림한다고 밝혔다.

올해 천연송이버섯 흉작예상

○산림청에 따르면, 8~9월까지 계속되는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올해 송이버섯은 흉작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올해 송이버섯은 100M/T내외로서 작년(137M/T)에 이어 2년 연속 흉작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연간 송이버섯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경북의 울진, 영덕, 영일, 청송, 봉화, 안동 지역의 혹심한 가뭄현상으로 송이버섯이 전혀 생산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송이버섯 생산량은 '89년에 954M/T, '90년에 945M/T, '91년에 324M/T, '92년에 773M/T, '93년에 137M/T이었으나 '94년에는 800M/T 생산전망을 하였으나 지금 기후여건으로 볼 때 이달말까지 100mm정도 비가 온다해도 송이버섯의 균사가 말라죽어 300~400M/T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수출과 농가소득이 50%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